



일본 원전사고 관련 언론보도 경향



박 범 수
한국수력원자력(주) 홍보실 기업홍보부장

현재 지구에서 환경, 에너지, 식량이라는 트릴레마는 머리 셋 달린 케르베로스가 되어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형국이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푼 알렉산더 대왕처럼 획기적인

대안과 방법이 아니라면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

이 중에서 에너지와 식량은 국가의 생존을 좌우한다. 과거 오일쇼크를 겪으며 에너지의 안보라는 용어가 탄생

했듯 식량문제 또한 식량안보라는 용어가 등장하며, 에너지와 식량의 중요성이 무게감을 더하고 있다.

한편, 에너지와 환경,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원자력발전뿐이다. 원자력발전은 우리나라 전력의 약 1/3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은 '불안'이라는 단어에 의해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 그런데 이 불안이라는 실체를 크게 만들어 보이는 것 중의 하나가 언론보도이다.

언론보도가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해 3월 11일 일본열도에서 일어난 지진과 이에 따른 쓰나미로 인해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의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바람직한 언론보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 후쿠시마 원전사고 개요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과 이에 따른 쓰나미로 인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6기, 제2원전 4기, 오나가와 원전 3기, 토카이 제2원전 1기 등 총 14기의 원전이 정지되었다.

2011년 5월 16일 동경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의 냉각 상실 및 연료용융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1호기는 3월 11일 지진 및 쓰나미 발생 약 5시간 후에 냉각기능을 상실하여 17시간 만에 노심이 완전히 용융되었으며, 2·3호기도 유사한 상황이었다. 또한, 4·5·6호기는 지진발생 시 정지되어 있어 심각한 손상을 입지 않았으며, 4호기 폭발은 사용 후 핵연료저장조의 핵연료봉 노출손상 때문이 아니라 3호기에서 4호기로 배기된 수소에 의해 발생하였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며, 상온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사고수습 계획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사용 후 연료저장조의 연료를 추출하며, 2019년부터 원자로 내부조사를 시작하여 2036년까지 연료파편을 제거하는 등 30~40년의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결과,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일본 정부는 '에너지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 원전의 신·증설을 전제로 수립한 에너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 언론의 보도형태

2011년 3월 11일 일본 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라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이를 주도하는 것은 방송 뉴스이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미치는 방송 매체의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방송 매체가 원자력을 어떻게 보도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향후 원자력 관련 정책 등의 수립에 중요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뉴스 매체로서의 영향력과 신뢰성을 고려할 때, 지상파 방송3사의 저녁 뉴스 보도 내용의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원자력 보도에 대한 국내 언론 보도(방송 뉴스)의 경향을 파악하고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제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 동북부에 지진이 발생한 2011년 3월 11일부터 9월 15일까지 약 6개월간 KBS 9시 뉴스, MBC 뉴스 데스크, SBS 8시 뉴스에 방송된 뉴스 가운데 일본과 우리나라의 원자력 관련된 내용의 뉴스 기사 579개를 선택하여 분석했다. 방송사별로 원자력 관련 보도는 KBS 9시 뉴스와 MBC뉴스데스크가 각각 198개로 동일하였고, SBS가 타 방송사에 비해 다소 적은 183개로 나타났다.

[표 1] 방송사별 기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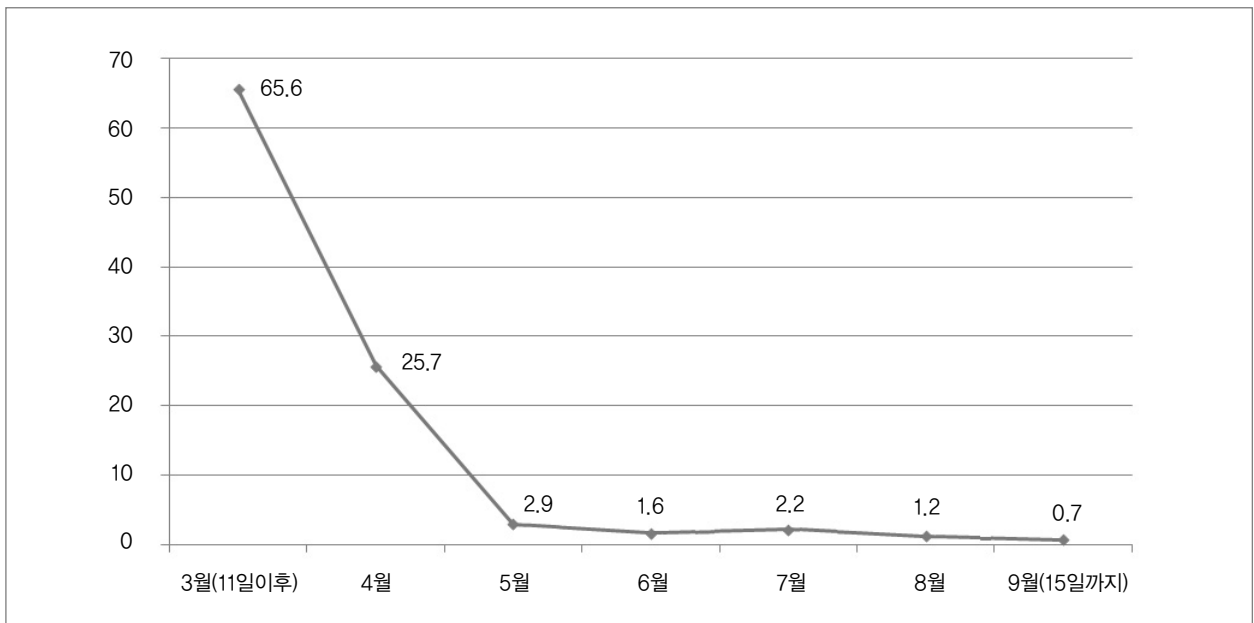
방송사	기사 수(빈도)	비율(%)
KBS	198	34.2
MBC	198	34.2
SBS	183	31.6
합계	579	100

원자력 관련 보도는 3월 15일부터 3월 19일 사이에 집중되었으며, 3월 말과 4월 초에 다시 관심을 받았지만, 이후 하루 1~2개 기사 정도만 보도되었다. 분석 기간 동안 KBS가 58일, MBC는 57일, SBS는 58일간 원자력 관련 기사를 보도하였다. 539개(93.1%)의 기사가 일반 보도였으며, 기획보도는 40개(6.9%), 해설보도는 전혀 없었다. SBS가 다른 두 방송사에 비해 일반보도의 비율이 다소 높고, 기획보도의 비율이 다소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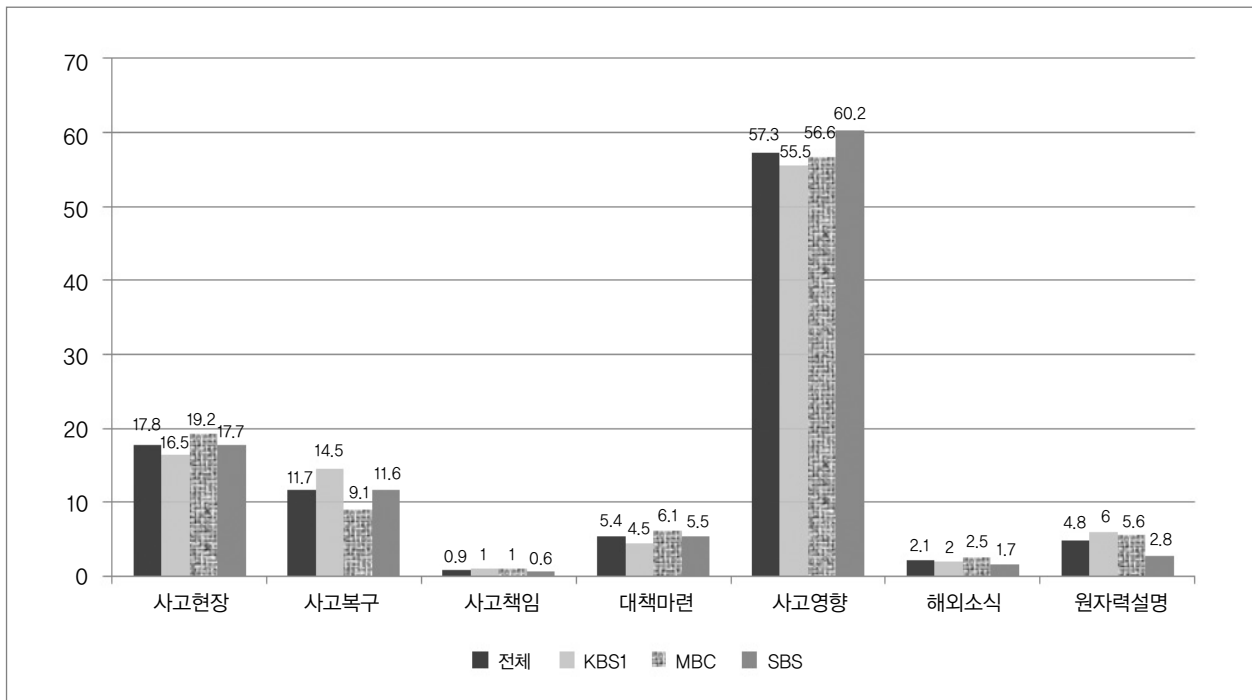
전체 기사 중에서 438개(75.8%)가 일반 기자에 의한 보도였다. 일본주재 특파원에 의한 보도는 99개(17.1%),

전문(의학·과학)기자에 의한 보도는 35개(6.0%)였다. 기사의 취재 경로는 '공식발표 내용 + 추가 취재(297개, 33.2%)', '독자적인 취재(280개, 31.3%)', '일본매체 발언(269개, 30.1%)' 이 전체의 95.6%로 나타났다.

전체 기사 중에서 378개(65.3%)가 일본을 주로 다루었으며, 139개(24.2%)는 우리나라를 주로 다루었다. 대부분의 기사(90.0%)에서는 사용 후 핵연료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단순한 언급이 1.9%였고, 폐기물(폐연료봉)로 접근하는 비율이 8.1%였다. 자원이라는 시각으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그림 1] 방송 보도 기사 수 추이(월별)



[그림 2] 방송사별 기사 주제 유형 분포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기사의 경우가 일본을 대상으로 한 기사 보다 사건 단순모사의 비율이 높은 반면, 일본을 대상으로 한 기사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기사보다 의견포함의 비율이 높았다.

종합해보면, 원자력 보도는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보도 보다는 단편적인 사실 전달에 치중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세 방송사 모두 동일하였다. 사건 발생 초기(3월 11일~19일)에는 집중적으로 다루어지다가 이후 방송의 관심이 줄어든 경향이 강하였다. 기획보도나 해설보도 보다는 일반보도 위주였으며, 일반기자의 보도 비율이 높은 반면, 전문기자의 보도 비율은 낮았다. 사용 후 핵연료를 주로 폐기물로 묘사하였으며, 자원으로는 언급하지 않았다.

원자력 보도 주제는 '사고영향' 보도가 57.3%(332개)로 가장 많았다. '사고 현장' 과 '사고복구' 는 각각 17.8%와 11.7%였으며, 다른 주제에 대한 보도 비율은 낮았다.

KBS는 '사고복구', MBC는 '사고현장', SBS는 '사고영향' 에 대한 보도의 비율이 각각 다른 두 방송사 보다 높았다. 4개의 시기 모두 '사고영향' 에 대해서 가장 많이 보도했으며, 1기의 43.2%에서 4기의 86%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사고영향' 을 주제로 하는 기사 332개 중에서는 '환경건강' 을 다루는 기사가 40.7%(135개)로 가장 많았고, '식품건강' 과 '주민일상변화' 를 다룬 기사도 각각 20.2%(67개), 13.3%(44개)였다.

'사고영향' 을 시기별로 비교하면, 1기에는 '환경건강' 과 '주민 일상변화' 가 가장 많고, 2기와 4기에는 '환경건강' 과 '식품건강' 이 가장 많았으며, 3기에는 '환경건강' 이 50.9%로 가장 많았다. 즉, 환경건강은 모든 시기에 많은 반면, 식품건강은 2기와 4기, 주민일상변화는 1기와 4기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원자력 보도 기사의 주제와 기사 대상국별 차이를 비교한 결과, '사고현장' 과 '사고복구' 는 사고가 일어난

일본 보도에 집중되었다. 일본 보도의 43.4%, 우리나라 보도의 95.0%가 '사고 영향'이었다.

'사고영향'의 경우, 일본의 보도는 '환경건강' (39.6%), '식품건강' (22.0%), '주민일상변화' (20.7%)를 다룬 기사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의 보도는 '환경건강' (45.9%), '식품건강' (17.3%), '원자력발전소 점검' (15.8%)의 비율이었다.

종합하면, 방송사들은 원자력 사고 자체 보다는 그 영향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원자력 관련 보도가 기사의 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사고영향'을 다룬 기사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었다. '사고영향' 중에서도 '환경건강', '식품건강'에 대한 보도가 집중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보도 중에서는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대한 기사도 나타났다.

■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연구 필요

원자력 관련 보도는 일본 원자력 사건을 계기로 집중적으로 보도되기는 하였지만, 단편적인 사실 전달 위주로 진행되었다. 또한, 방사능 오염 등의 원전 사고의 영향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으며,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해서도 폐기물(폐연료봉) 또는 위험한 물질이라는 보도가 집중되었다. 더불어 전문기자의 보도가 상당히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원자력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자의 양성이 시급함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원자력 관련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원자력 관련 보도가 우리 국민들의 원자력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에 비해 미디어 보도를 통한 파급효과 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온라인상에서 거론된 유언비어(예: 괴물메기 소동)를 방송하는 등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원인은 원자력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기에 발생한 해프닝이다. 따라서, 원자력 관련 정책 및 원자력에 대한 안전성 인식 등 정확한 여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대국민 이해도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공정하고도 심층적인 전문성이 내재된 보도형태 연구가 요청된다고 보여진다. KEA